

“국민이 안심하고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원자력 기술 확보”

박원석

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



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원자력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
지난 2020년은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원자력계 뿐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와 구성원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.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에는 그 동안 발휘하지 못했던 에너지와 열정을 각자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 쏟게 되길 기원합니다.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

60년간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을 이끌었던 연

구 역량을 결집해 미래를 대비하는 도전적 원자력 기술 영역을 개척하고자 합니다. 연구원은 그 동안 가동 원전의 안전연구부터 노후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복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원자력기술을 개발,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올해에도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, 2012년 정부가 수립한 ‘해체 핵심 기반기술 확보 계획’도 올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이에 더해 연구원은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작고 유연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과 선도형 융복

합 기술 개발에 주목합니다.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 연구로 원자력기술 영역을 확장해 사회적·기술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 전통적인 원자력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은 원자력연구원 뿐 아니라 원자력계 전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아울러 미래 60년을 바라보는 첨단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대형시설 역시 국내외 산·학·연 관계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 대전, 정읍, 경주로 이어지는 연구거점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며, 연구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첨단 연구시설

을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기반을 체계화하고 연구자를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원자력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자력기술을 꿈꾸며, 원자력연구원이 미래 60년을 향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**KAIF**